ETF Spectrum

고경범 Passive/ETF
gyeongbeom.ko@yuantakorea.com

김혜원 Research Assistant
hyewon.kim@yuantakorea.com

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에너지 ETF

에너지 섹터는 현재 반등 국면 진입

26일(현지시간)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앞두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.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연초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약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, 에너지 ETF인 XLE ETF에도 자금이 집중되는 모습이다. 특히,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, 에너지 섹터는 연초 대비 +23.2% 상승하며 섹터형 ETF 내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.

유가 하락 = 에너지 ETF 하락? 〉〉 No.

에너지 ETF의 과거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유가와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으나, '22년 이후 주가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유가 상승/하락 = 에너지 ETF 상승/하락이 아니라는 의미이다. 결론적으로, **"비용 절감 + Q의 성장 + 주주환원"**에 따라 유가 상방이 제한적이라도 에너지 ETF 투자 접근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.

1) **비용 절감:** 엑슨모빌은 저원가로 생산이 가능한 가이아나 해상 유전과 퍼미안 분지에 집중해 손익분기점(BEP)을 낮추고 있다. 장기적으로는 '22~'23년 약 $40였던 손익분기점(BEP) 유가 수준을 '27년 $35, '30년 $3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게 목표이다. 또한, 공급망 중앙화 및 조직 효율화를 통한 구조적 비용도 절감하고 있다.

2) **Q의 성장:** 대형 원유 에너지 기업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. 이에 따라 엑슨모빌, 쉐브론은 '25년 각각 일평균 474만, 372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며 역대급 생산량을 기록했다. 특히, 트럼프는 올해 초 베네수엘라의 원유 통제권을 확보해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 베네수엘라에서 유일하게 활동 중인 쉐브론을 포함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수혜가 가능할 전망이다.

3) **주주환원:** 에너지 기업들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. '22년 이후 저유가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도 높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지속하고 있으며, 엑슨모빌은 '26년에도 $2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유지할 계획이다.

관심 ETF로는 XLE ETF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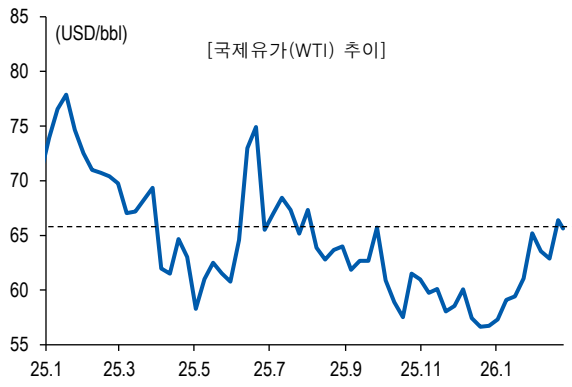
1) State Street Energy Select Sector SPDR ETF(XLE)

- ✓ 미국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, 엑슨모빌, 쉐브론의 비중이 높은 편(41.5%)
- ✓ 유가 변동성 속에도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안정적인 배당 확보 가능
- ✓ 베네수엘라 사태 등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권 확장에 따른 구조적인 수혜 기대

참고) KIWOOM 미국원유에너지기업 ETF(4748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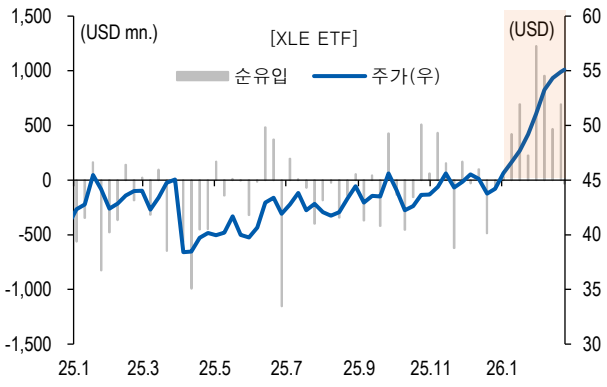
- ✓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로, XLE ETF와 유사하게 엑슨모빌, 쉐브론 비중이 높은 편(37.6%)
- ✓ XLE ETF는 종목 수가 약 23개로 대형주 중심이라면, 해당 ETF는 종목 수가 약 110개로 에너지 섹터에 분산 투자

[차트 1] 지정학적 리스크 대두되며 국제유가 7 개월만에 최고치 기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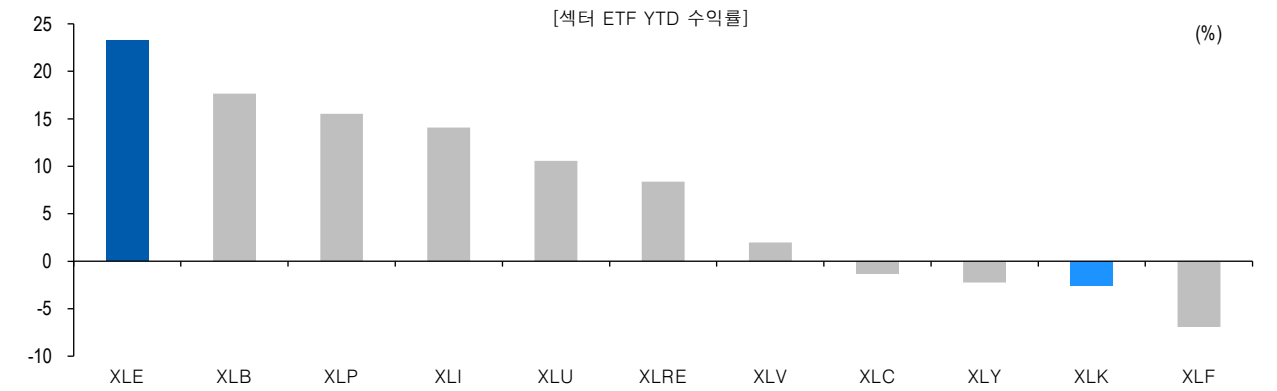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 2] 연초 이후 에너지 ETF 로 자금 집중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 3]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기술주는 약세 보인 반면, 섹터형 ETF 중 YTD 수익률이 가장 좋은 에너지 섹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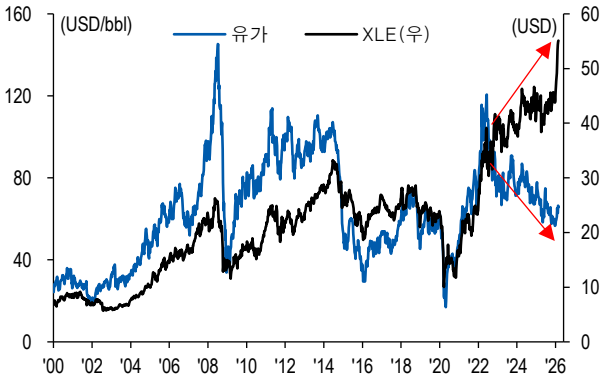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 4] 미 증시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 속, 에너지 섹터는 반등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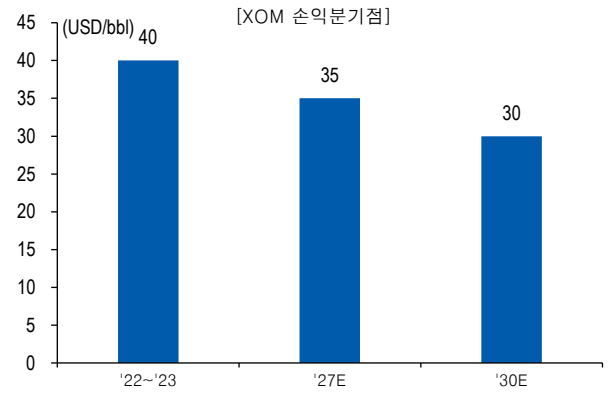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 5] '22 년 이후 유가와 괴리를 보이는 에너지 섹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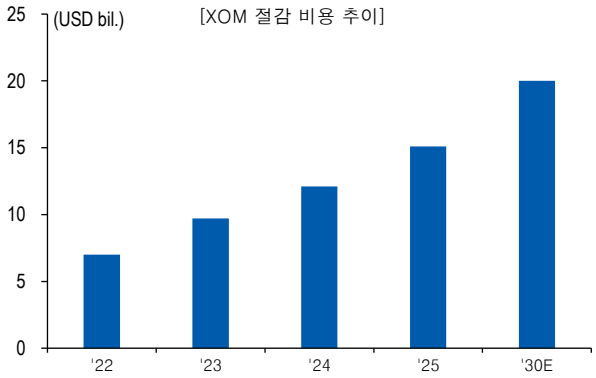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 6] 엑슨모빌의 경우, 저원가 생산으로 손익분기점(BEP) 낮추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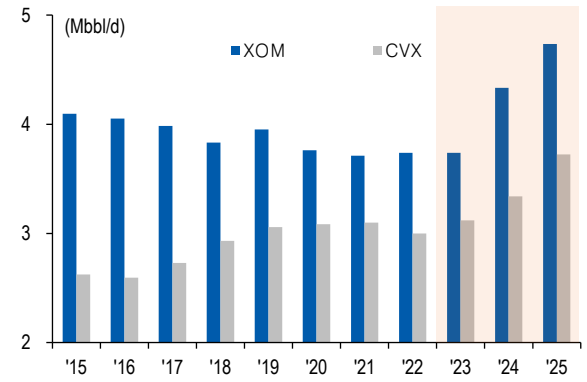
자료: ExxonMobil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 7] 구조적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 확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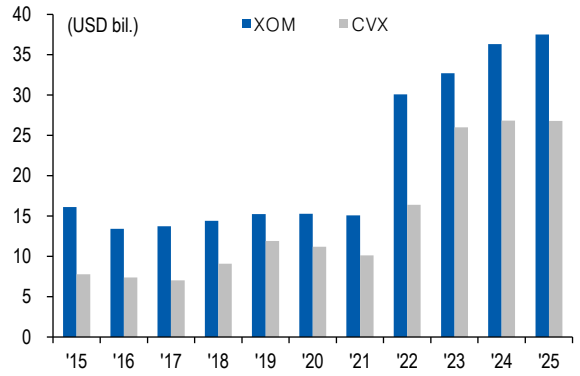
주: '19 년 대비 누적 절감 비용
자료: ExxonMobil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 8] 엑슨모빌, 쉐브론은 역대급 원유 생산량 기록하며 Q 늘리는 추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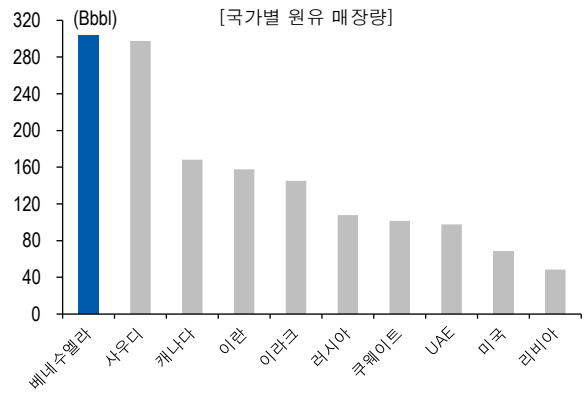
자료: ExxonMobil, Chevron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 9] 배당, 자사주 매입 등의 주주환원 정책도 지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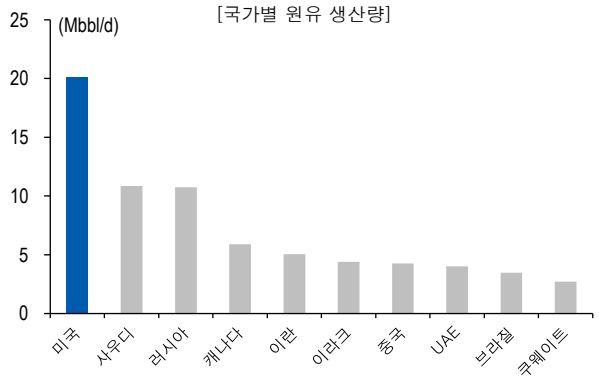
자료: ExxonMobil, Chevron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 10] 트럼프는 원유 매장량 1 위인 베네수엘라 원유 통제권 확보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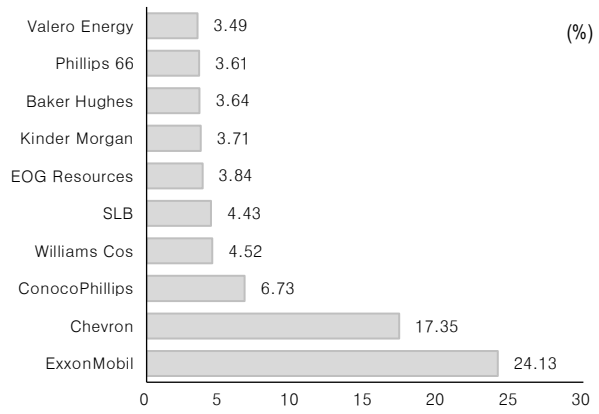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석유공사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 11] 원유 생산량 1 위인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고자 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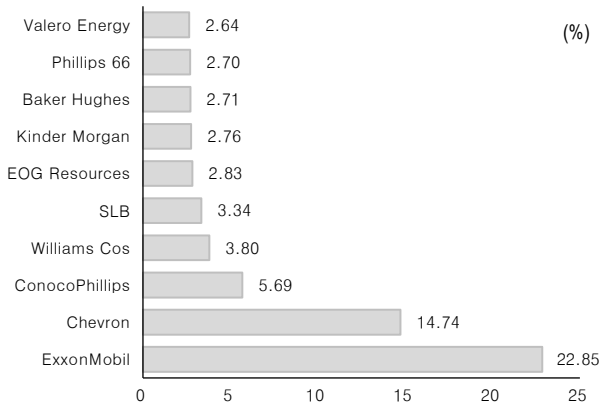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석유공사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 12] State Street Energy Select Sector SPDR ETF(XLE) 주요 종목 비중



자료: State Street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 13] KIWOOM 미국원유에너지기업 ETF(474800) 주요 종목 비중



자료: 키움투자자산운용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표 1] 글로벌 주요 에너지 ETF 리스트 (USD mn., %)

Ticker	ETF	개요	AUM	YTD 수익률	YTD 순유입	상장일
XLE	State Street Energy Select Sector SPDR	에너지	37,772	23.2	4,698	1998-12-22
VDE	Vanguard Energy	에너지	9,038	23.3	364	2004-09-29
XOP	State Street SPDR S&P Oil & Gas Exploration & Production	원유, 가스 탐사 & 생산	2,482	18.5	351	2006-06-22
OIH	VanEck Oil Services	원유 서비스	2,434	40.8	547	2011-12-21
IXC	iShares Global Energy	에너지	2,168	21.5	-144	2001-11-16
FENY	Fidelity MSCI Energy Index	에너지	1,605	23.3	24	2013-10-24
IYE	iShares U.S. Energy	에너지	1,419	22.6	41	2000-06-16
IEO	iShares U.S. Oil & Gas Exploration & Production	원유, 가스 탐사 & 생산	503	19.0	15	2006-05-05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Appendix

-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. (작성자: 고경범, 김혜원)
-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,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,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,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또한,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